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나라 제목: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한국 기독교

성경:로마서 13장1-7절

1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2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3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4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5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6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7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롬13:1-7)

하나님께서 한국을 대단히 사랑하신다.

한국은 대단히 독특한 나라이며, 그 저력이 크다.

하나님은 한국을 예의주시하시며 연단하신다.

한국 사람들은 대단히 부지런하며 뛰어난 민족이다. 그러므로 그 재능들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해야 한다.

한국 기독교는 이 땅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믿음을 지키다 스러져갔다.

오늘 우리는 그들이 일구어 놓은 숭고한 영적 자산 위에 서 있는 셈이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유럽, 중국, 일본 할 것 없이 침체하는 분위기 속에 있지만, 오직 한국만 저력을 보이며 성장하고 있다.

한국은 지금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오늘의 한국이 있기까지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 다 표현할 길 없다.

하나님, 한국교회는 이 나라의 또는 온 인류의 소망이다.

우리는 잘 하고 있으며, 더 잘할 수 있다.

오늘 본문 말씀 강해

핵심 주제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함.

우리나라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 인권을 무시하고 탄압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탄압받는 자들과 권세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동일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탄압하는 것도 악한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복종하지 않는 것도 악한 것이다. 또 탄압했기 때문에 권세에 복종하지 않겠다는 것도 핑계에 불과하다.

억울한 일을 당하였다면 해당 기관에 청원을 해야 할 것이다.

부당한 일을 겪었다면 정당한 절차를 밟고, 정당한 일을 세워야 할 것이다. (대형마트의 영업규제가 절차상이 하자 있다고 함. skt의 괴문자 사건.)

세상에는 악한 자들도 있기 때문에 의로운 자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의로운 자들은 왜 의로운 자들인가? 계속해서 정의로운 일을 행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정의를 부르짖는 것과 정부에 항의하고 시위를 하는 것을 동일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요즘 특히 일하는 정부가 들어서서 공무원들이 회사에서 일하는 일꾼들처럼 일하는 분위기여서 매우 좋다.

일전의 모 정당의 당원들이 서버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공권력에 대항했는데, 이제는 이처럼 공권력에 대항하는 것은 사라져야 할 것이다. 파출소의 주취시민들도 마찬가지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내가 권력을 잡으면 절대로 비리나 악행이 없을것처럼 장담하는데, 나는 그것을 믿지 않는다. 권력집단은 나 홀로 잘 하는게 아니다.

또 대통령은 아랫사람 관리하는데 모든 시간을 소모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검찰은 열심히 권력을 이용해서 비리를 파 해치고, 공무원들은 열심히 맡은바 소임을 다해야 하리라. 국민들은 그러리라 믿고 각자 열심히 살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도 고소고발 사건의 90% 이상이 묻지마, 카더라 통신에 의한 것이거나 헛김에, 방해를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 검찰도 곤욕, 경찰도 허위신고로 곤욕, 구급대원도 곤욕이다. 오죽했으면 고양이도 잡지 않겠단다...

-그러므로 진정한 나라사랑이란, 공무원들이 공무에 성실히 임하도록 돕는 것이다.

-한국 기독교는 핍박 가운데 성장하였다.

-요즘 핍박은 안티기독교, 타종교의 핍박, 이단의 핍박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다.

-특히 기독교인 출신 이면서 기독교를 공격하는 자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다. 특히 비리를 경험한 사람들의 경우가 더 심하다.

-이들은 자신이 당한 비리를 밝히고 싶겠지만, 전체 교회의 건강함을 먼저 생각하고 보이지 않고 경험하지 못한 교회들에게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핍박을 받을수록 더 번성했다고 기록하고 있다.(12절;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그러니 우리도 더 잘 할 수 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일련의 실수들로 대적들에게 약점을 보이고 괴롭힘을 당해왔다.

한국사회가 그렇듯이 한국교회도 분열의 아픔으로 고통 당하였다.

교단주의가 팽배하고, 지교회주의가 도를 넘어섰다.

급기야 문제에 직면해서 순간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상실되고 말았다. 이런 틈을 타고 마귀는 한국교회의 사랑방을 차지하고 이제는 안방마저 내 놓으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제는 이념 논쟁에 휘말리지 말자.

이제는 교리 논쟁에 휘말리지 말자.

-연합하지 못한 한국교회는 이단이 할거할 때 속수무책이었다.

-한국교회는 무분별한 종말론을 막아내지 못했다.

-한국교회는 젊은 세대들을 키워내지 못했다.(선교단체들에게 주도권을 빼앗겼다.)

-한국교회는 안티 기독교운동을 막아내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마귀의 힘빼기 전략에 속아 넘어갔다.

예) 사립학교

-한국교회 특히 사립학교들은 관행적인 비리에 노출되었다.

-사립학교지만 공립학교처럼 학생을 선발하지 못해서 생기는 고통이 먼저다. 박정희 정권때 평준화 명목으로 학교교육에 정부가 개입.

-이제는 사립학교의 정관마저 바꾸라고 압박.

-전교조는 학생인권을 핑계로 교권을 침해하기 시작.

-학생들에게 방향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음.

-그러나 사립학교가 비리 앞에 우선 청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대광고 사태로 불교단체 종교자유연구소가 편향적 시각으로 기독교

교를 공격했다. 지금은 국민일보를 중심으로 이들 세력들과 대항하면서 합법적인 항변을 계속하고 있다.

-국민일보 전 직원들이 검찰에 고발한 사건으로 국민일보도 한동안 어려움에 처했었지만, 점차적으로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

-사랑의교회도 점차적으로 진실이 밝혀지고 있으며, 지역사회를 위한 수고도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한국교회는 그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없이 선한 일을 많이 하였지만, 긍정적인 일들은 언론에서 다루지 않고, 오히려 부정적인 일들만 다루고, 긍정적인 일들이라 해도 부정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다.

-정의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가 착하게 살면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정의란 악을 대항하는 것이다. 악에 대항해야지 권력에 대항하면 곤란하다. 착각하지 말자.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지금도 달라지고 있으며, 한국교회는 빠르게 영성을 회복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에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한국교회의 정의를 사람들에게 조용하게 그러나 힘있게 증언해야 할 것이다. 아멘.

<찬양예배>

주제: 달란트 제목: 달란트는 많을수록 좋다 말씀:
마태복음 25:14-30

14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15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16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17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두 달란트를 남겼으니

18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19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새

20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1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이다 하고

22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3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이다 하고

24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25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26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이야 니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27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28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29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30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마25:14-30)

교회에서 달란트시장을 하는 이유.

- 하나님의 상급에 대한 교훈 때문.
- 상급을 바라보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건강하기 때문.
- 상급은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유익하기 때문.
-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많은 상을 받기 원하신다.